

Fire News	PC통신(국내, Web)에서 발췌한 각종 화재·폭발 사고를 제공.
------------------	---

97/ 10/ 04 울산 아파트 화재

23시 30분경 경남 울산 남구 달동 주공아파트에서 도시가스가 폭발, 3명이 중상.

이 사고로 인해 4가구가 전소, 폭발소리에 놀란 주민 2천여명이 긴급 대피.

부부싸움중에 가스렌지 밸브를 틀어 LNG를 유출시킨 후 라이터로 점화하여 폭발.

97/ 10/ 06 병원 보일러 폭발

5시 45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 문화병원 지하보일러실에서 경유보일러가 폭발, 3명 부상, 차량 3대 파손.

보일러실 자동점화장치를 켜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과 파편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보일러의 노후화로 누출된 가스에 불꽃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

97/ 10/ 12 여관에 불

1시 32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 청수장여관 1층 출입구에서 불이 나, 3층 투숙객 1명이 뛰어내리다 사망하고 7명 부상.

여관 출입구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종업원들의 말에 따라 누군가가 버린 담배꽂초로 인한 불로 추정.

97/ 10/ 13 봉제공장 화재

12시 40분경 대구 서구 평리동 5층 건물 지하 1층 봉제공장에서 가스버너 옆으로 신나를 옮기다 불이 나 어린이 1명 사망.

사고 당시 2층 학원에 57명의 어린이들이 있었으나 긴급출동한 구조대원이 사다리차로 구조.

사망자는 혼자 계단을 통해 먼저 빠져 나오려 다 화장실에서 연기 질식.

97/ 10/ 14 신발공장에서 불

15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지하 구두공장에서 불이 나 신발완제품 등 1천3백여만원의 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진화.

신발완제품을 쌓아둔 곳에서 발화해 번지기 시

작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신발건조기 배관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

97/ 10/ 21 태백 광산 가스폭발

11시경 강원 태백시 장성동 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로 갱도가 무너져 10명이 매몰되었으나 6명 사망, 4명 구조.

이 사고는 지하 3천미터 지점에서 갱내 메탄가스가 차 있는 가운데 송풍기와 전기스위치 교체 작업을 벌이다 스파크에 인화.

97/ 10/ 22 현대중공업 폐기물창고 불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 소각공장 폐기물 야적창고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때마침 분강풍으로 5백여톤의 폐기물을 태우며 나오는 유독가스가 퍼져 인근주민, 근로자들이 고통.

97/ 10/ 27 현대 미포조선 가스폭발

15시 15분경 울산 동구 염포동 현대미포조선에서 수리중이던 원유저장선 아틀랜틱 블루호에서 가스가 폭발, 9명 사망, 8명 중경상.

원유저장선을 운반선으로 개조하기 위해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불꽃이 누출된 가스에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

97/ 10/ 28 소녀가장 촛불기도중 화재

3시경 광주 서구 금호동 임대아파트에서 소녀가장이 촛불을 켜고 장애인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다 잠든 사이 촛불이 넘어지면서 불이 나 아파트 전소.

97/ 10/ 30 아파트에 불

22시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동진아파트에 4층에서 불이 나 위층에 사는 주민 7명이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다 떨어져 3명이 크게 부상.

커피포트의 과열로 일어난 불이 커텐으로 옮겨 붙어 순식간에 집안밖으로 확대.

97/ 10/ 31 주유소에 불

12시 40분경 전북 전주시 중화동 주유소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불길기 치솟아 주유소 사장이 불길에 휩싸여 중화상.

최초 인화성 물질이 가득 찬 창고에서 화재

가 발생하여 주유기 틈새에서 새어나온 휘발성 가스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

97/ 10/ 31 상가 화재

14시 20분경 경남 창원시 남양동 아파트상가 사진관에서 불이 나 7개 점포를 태우고 1시간만에 진화.

3층으로 연기가 올라가 학원생 90여명이 질식했으나 생명에는 무관.

불은 사진관내 휴지통에서 시작.

97/ 10/ 31 이태리 밀라노 병원에 화재

밀라노시 리카르도 갈레아병원 고압산소처리실에서 화재가 발생, 환자 10명 등 11명 사망.

목격자는 고압산소처리 치료를 하는 순간 내부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

97/ 11/ 02 유조선 폭발

12시 30분경 울산항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정박중이던 유조선에서 폭발, 3명 사망.

기름 탱크 안의 잔류 가스에 불씨가 옮겨 붙어 일어난 사고로 추정.

97/ 11/ 03 재실에 불

22시경 대구 수성구 파동 양씨 재실에서 불이나 1명 질식사.

사망자가 만취 상태에서 석유난로를 켜고 자다 난로가 넘어지면서 사용하다 남은 부탄가스와 이불에 불이 옮겨 붙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

97/ 11/ 11 올림픽공원 수영장에 불

18시 30분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실내수영장에서 천장교체작업중 불이 나 3명 부상, 25분만에 진화.

실내공기환기용 덕트를 철거하다 용접불꽃이 석면재에 옮겨붙어 화재.

97/ 11/ 12 다가구주택 가스폭발

18시 17분경 경기 안산시 일동 다가구 주택

에서 도시가스배관 교체공사를 했다는 말에 따라 공사 후 누출가스가 폭발한 듯.

97/ 11/ 17 인조습 제조공장 화재

23시경 경기 양주군 광적면 대광산업에 불이나 2시간 30분만에 진화.

목격자는 공장 밖에 설치된 모터펌프가 가열돼 숨먼지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고 진술.

97/ 11/ 20 미용실에 방화

3시 39분경 광주 동구 서석동 헤어필드미용실에서 불이 나 2명 중경상.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핏김에 중상자가 석유를 뿌리고, 경상자가 불을 붙여 공동방화.

97/ 11/ 21 조폐창에 불

16시 30분경 경북 경산시 경산조폐창 증축 건물 천장에서 불이 나 1층 건물 전소.

덕트공사를 위해 용접 작업중 천정 방음재 우레탄에 불뚱이 튀어 인화. 초기진화 실패.

250억원대 지폐인쇄기 3대가 부분 훼손.

97/ 11/ 24 단독주택서 불

2시 10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단독주택 2층에서 LPG가스통이 터지면서 불이 나 세들어 사는 2가구 5명 중경상.

방안에서 가스통이 발견된 점과 "살기 싫어서 했다"는 진술에 따라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추정.

97/ 11/ 30 아파트 굴뚝 폭발

23시 20분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KIT아파트 옥상 굴뚝에서 원인모를 폭발 발생.

보일러를 고치던 중 정지시켰던 보일러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폭발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굴뚝 안에 차 있던 가스가 점화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